

## 9

## 칼빈의 교회와 국가론

안인섭 교수 / 종신대학교 교회사

### 1. 들어가는 말

역사적 교회가 정치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존재해 왔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교회사는 일반 역사와 관련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sup>1)</sup> 종교개혁은 단순한 일련의 이념들의 역사가 아니라 계급들, 사회들, 그리고 정부들의 정치적 사회적 갈망들을 포괄했던 전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기간이었다. 마침내 이 운동은 기독교와 그 종교개혁을 수용했던 사회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들을 출범시켰으며, 지역적, 국가적 전통들을 창출했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신앙은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조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역사적 결과물들을 도출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개혁자들의 신앙적 항거와 평신도들의 정치적 열망

1. A. J. Jelsma, "De Kerk als tegenbeweging. De strategische waarde van martelaarsboeken", in : *Geloven in de minderheid?*, (red.) F. de Lange (Kampen : Kok, 1994), pp. 22 - 23.

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2)</sup>

종교개혁은 유럽의 문화사에 있어서 중세와 근대 사이의 변천 시기이다. 따라서 우리가 칼빈을 연구할 때, 특히 그의 교회와 국가 사상을 연구할 때, 그 출발점을 후기 중세와 그 자신의 시대적 배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세는 교회가 조직화된 전체 사회와 동일시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역사적 시대들과는 구별되는 시기였다.<sup>3)</sup> 16세기 초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 그 시대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형성하면서 성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네덜란드의 교회사 교수인 엘스마가 16세기 유럽의 환경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내가 16세기 초의 가톨릭주의를 모든 것을 포괄하는 권력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믿는다. 중세 후기에 교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체제로 자라났다. 그래서 그 체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높은 정도까지 결정했으며, 유럽의 사회적, 법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물론 종교적 삶을 조정하는 관료 제도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다.”<sup>4)</sup>

2. E. Cameron, *The European Reformation*(Oxford : Clarendon Press, 1991), pp. 2f. 우리가 종교개혁을 연구할 때, 그것은 몇몇 중요한 인물들의 역사라기보다는 역동적인 여러 운동들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엘스마의 다음 책을 보라. A. J. Jelsma, *Frontiers of the Reformation : Dissidence and Orthodoxy in Sixteenth-Century Europe*(Aldershot/Brookfield USA/Singapore /Sydney : Ashgate, 1998), p. 4.
3. R. W. Southern, *Western Society and The Church in the Middle Ages* (London : Hodder and Stoughton, 1970), pp. 15–52. 그는 심지어 유럽의 중세를 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즉 콘스탄틴부터 볼테르까지 광의의 범주에서 보기도 한다.
4. A. J. Jelsma, *Frontiers of the Reformation : Dissidence and Orthodoxy in Sixteenth-Century Europe*(Aldershot/Brookfield USA/Singapore/Sydney : Ashgate, 1998), p. 1. 이 책은 네덜란드어 책에서 영어로 번역되어, 스코틀랜드의 St. Andrews studies in Reformation History. 시리즈로 출판되었다. 네덜란드어 책은 다음과 같다. *Zonder een Dak Boven het Hoofd : In het*

종교개혁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조건들은 또한 그 종교적 변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개혁을 연구하기 위해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sup>5)</sup>

칼빈의 사상 또한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는 전형적인 16세기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칼빈의 도시 제네바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쉽게 제네바의 환경과 칼빈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사상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제네바는 주교와 사보이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방금 정치적 자유를 획득했다. 그리고 베른이 제네바를 식민지화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네바는 그 독립을 광범위하게 향유했다. 제네바 정부가 전통이 없는 젊은 정부였기 때문에 그 도시의 자유는 종교개혁 유지와 단단히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독특한 칼빈의 공동체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6)</sup>

## 2. 국가의 과제

칼빈의 국가개념을 고려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국가의 위치를 중세의 문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세는 교회가 문명과 결합되어 있었다. 국가는 한편으로 거룩한 기구로 받아들여졌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죄의 결과로 여겨졌다. 중세 초기에는 계르만, 카롤링거 국가개념과 관련해서 전자, 즉 국가가 거룩한 기구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를 죄의 결과로 보는 견해에 의해서는 국가가 교회의 권위

<sup>2)</sup> grensgebied tussen Rome en Reformatie(Kampen : Kok, 1997).

5. A.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Oxford : Blackwell, 1993), pp. 15–21.

6. E.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tr.) O. Wyon(New York : Harper & Brothers, 1960), pp. 625–27.; A.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 An Introduction*, pp. 19–20.; W. F.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Richmond : John Knox Press, 1971), pp. 30–39.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다.<sup>7)</sup>

우리의 시각을 칼빈에게 돌려 보면, 그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삶과 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처음 종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사람은 본성이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사회생활을 육성하며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생활의 공정성과 질서에 대하여, 보편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단체생활은 모두 법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법의 원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관해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개인이 한결같이 합의하게 된다. 교사와 입법가가 없어도 법의 씨앗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sup>8)</sup>

그러나 발저(M. Walzer)에 의하면, 칼빈의 사상에 있어서 그 처음 본

7. E.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pp. 257-59.

8. OS. III. 256. (=Institutes. 2.2.13.), ……Quoniam homo animal est natura sociale, naturali quoque instinctu, ad fovendam conservandamque eam societatem propendet : ideoque civilis cuiusdam et honestatis et ordinis universales impressiones inesse omnium hominum animis conspicimus. Hinc fit ut nemo reperiatur qui non intelligat, oportere quosvis hominum coetus legibus contineri, quique non earum legum principia mente complectatur. Hinc ille perpetuus tam Gentium omnium, quam singulorum mortalium in leges consensus, quia insita sunt universis, absque magistro aut legislatore, ipsarum semina. 이후로 「기독교 강요」의 영어 번역본은 다음의 두 책이 사용될 것이다. 1536년에 나온 「기독교 강요」의 초판은 다음을 보라. J. Calvin,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tr. and annot.) F. L. Battles(Grand Rapids, Eerdmans, 1986). 1559년의 마지막 판은 다음을 보라. J. Calvin, *Calvin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 T. McNeill (tr.) F. L. Battles(*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20-21) 2 vols.(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0).

성은 죄에 의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는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인간의 비사회적인 두 번째 본성이 부정적인 정치적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sup>9)</sup> 비록 발저가 칼빈의 사상에 있어서 인간의 정치적 본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칼빈이 국가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칼빈 자신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지상의 모든 일에 대한 권위가 왕들과 다른 권리자들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인간성의 패악성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명령에서 유래한 일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사를 처리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계심으로서 그들이 법을 제정하며 재판소에서 공의를 실시하는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sup>10)</sup>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은 어거스틴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 준다. 칼빈은 양극단적 신학 입장 사이에서 중도의 길을 걸었다. 칼빈에 의하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에 의해 모든 면에서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sup>11)</sup> 그러므로 칼빈은 국가를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했던 것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사회 안에서 정부의 기능의 중요성

9. M. Walzer, *The Revolution of the Saints : A Study in the Origins of Radical Politics*(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82), pp. 32-3. 그러므로 Walzer는 주장하기를 존 록크가 칼빈을 따랐다고 한다.

10. OS. V. 475. (=Institutes., 4.20.4.), Perinde enim istud valet acsi dictum esset, non humana perversitate fieri ut penes Reges et Praefectos alios sit in terris rerum omnium arbitrium, sed divina providentia et sancta ordinatione : cui sic visum est res hominum moderari…….

11. F. L. Battles, “Calculus Fidei”, in :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vol. 7.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alvin's Theology*, (ed.) R. Gamble (New York & London : Garland Publishing, 1992), pp. 195-220.

과 필요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매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가 인간 사회에서 중요하고 정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국가도 그러하다는 것이다.<sup>12)</sup>

그는 또한 계속해서 국가의 목적을 교회를 후원하고 인간의 사회적 삶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는 일, 즉 사람들이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따뜻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 포함한 생활 방도를 마련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한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훼방, 그리고 그 밖에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방해가 사회에 발생하거나 만연하지 않도록 하고 치안을 보호하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간 상호간의 선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정직과 겸양의 덕을 보존한다. 요컨대 그리스도인이 공개적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 인간성이 보존되도록 한다.”<sup>13)</sup>

더구나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위정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12. OS. V. 473-474.(=Institutes., 4.20.3.), “.... Nunc istud tantum intelligi volumus, de ea exterminanda cogitare, immanem esse barbariem : cuius usus non minor inter homines quam panis, aquae, solis et aeris : dignitas quidem multo etiam praestantior.” (“여기서는 정부를 폐지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인간 사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가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참으로 그 위치는 훨씬 귀중하다.”)

13. OS. V. 473-474.(=Institutes., 4.20.3.), Non enim (quae illorum omnium commoditas est) huc spectat duntaxat ut spirent homines, edant, bibant, foveantur(quanquam haec certe omnia complectitur, dum efficit ut simul vivant), non tamen, inquam, huc spectat solum : sed ne idolatria, nein Dei nomen sacrilegia, ne adversus eius veritatem blasphemiae aliaeque religionis offenses publice emergant ac in populum spargantur : ne publica quies perturbetur : ut suum cuique salvum sit et incolume : ut innoxia inter se commercia homines agitant : ut honestas et modestia inter ipsos colatur.

서 임명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정자들은 ‘공적인 선을 위해 서’ 통치를 행해야만 한다.<sup>14)</sup> 요컨대 칼빈에 있어서 국가의 목적은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sup>15)</sup>

그러므로 칼빈의 관점에 있어서 위정자의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며, 따라서 위정자는 자연히 하나님의 위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국가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sup>16)</sup> 그렇기 때문에 칼

14. J.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tr.) and(ed.) J. Owen(Grand Rapids : Eerdmans, 1947), pp. 478, 481.

15. E.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p. 313. 맥 그레스는 칼빈의 사상에 있어서, 위정자의 두 역할을 정치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요약한다. 그것들은 정치적, 교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정당한 교리를 가르치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다. A.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Oxford : Blackwell, 21993), p. 216. 케디는 또한 칼빈의 시민 정부의 3가지 근본적인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함께 사는 삶을 제공, 2) 바른 종교를 확립, 3) 국가의 정의를 위함. G. J. Keddie, “Calvin on Civil Government”, in :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vol. 11. Thought on Economic and Social Issues and the Relationship of Church and State*, (Ed.) R. Gamble(New York & London : Garland Publishing, 1992), pp. 43-55.

특히 세 번째 과제를 위해서 케디는 국가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 안의 사회적인 관계들의 규정과 둘째, 일반적인 평화의 증진이 그것이다. 한편 케디는 또 칼빈의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5가지 성경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국가는 신적 기구이며, 공직자들도 신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2) 국가 권위는 복종되어야 한다. 3) 국가 권리가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기능을 유기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그 폭군의 약탈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도록 하라. 그래서 개인적인 죄에서 돌아오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라. 4) 폭군과 무정부 사이에서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위정자를 세우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 5) 국가로 하여금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라.

16. OS. V. 474-75.(=Institutes., 4.20.4.), “ea enim significatur, mandatum a Deo habere, divina autoritate praeditos esse, ac omnino Dei personam sustinere, cuius vices quodammodo agunt. .... Quid hoc est, nisi demandatum illis esse a Deo negotium, ut illi in suo munere serviant? et ... iudicium exerceant non pro homine, sed pro Deo?”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위임과 권위를 받았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표, 이를테면 대리자로서 행동한다는 뜻이다. ....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지위

빈이 바라보는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법적인 하나님의 소명일 뿐만 아니라 전 삶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것이다.<sup>17)</sup>

칼빈이 생각할 때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위정자들이 교회를 지지하는 것 또한 칼빈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요컨대 주권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모든 주의와 정성과 열성을 다하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과 후의와 공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sup>18)</sup>

한편 칼빈에게 있어서 위정자들에 의해서 수행된 처벌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했다.<sup>19)</sup> 칼빈은 법에 매우 정통했던 법의 박사로서 위정자의 의무를 공적인 법의 맥락에서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다.<sup>20)</sup>

또 다른 점에서 위정자들을 향한 신하들의 첫 의무에 대해 칼빈은 그들의 직책을 존경할 것과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요, 대표자로서 간주

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17. OS. V. 475. (=*Institutes.*, 4.20.4.), “Quare nulli iam dubium esse debet quin civilis potestas vocatio sit, non modo coram Deo sancta et legitima, sed sacerrima etiam, et in tota mortalium vita longe omnium honestissima.” (“따라서 정권은 하나님의 소명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할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어느 소명보다도 신성하고 훨씬 더 영예롭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18. OS. V. 476. (=*Institutes.*, 4.20.6.), In summa, si se Dei vicarios esse meminerint, omni cura, sedulitate, industria invigilent oportet, quo hominibus quandam divinae providentiae, custodiae, bonitatis, benevolentiae, iustitiae imaginem in se repraesentent.
19. OS. V. 481-3. (=*Institutes.*, 4.20.10.), “그러나 집권자가 별을 주는 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을 실시하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다.”
20. J. T. McNeill, “Calvin and Civil Government”, in :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ed.) D. K. McKim(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4), pp. 261, 266-68.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21)</sup> 그러므로 비록 지배자들이 정당하지 않을 때 조차도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의무이다.<sup>22)</sup> 국가에 대한 칼빈의 교리에서 심지어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의 의적인 도구로 간주되어야 한다.<sup>23)</sup> 칼빈에 의하면, 정부의 권위에 대한 부정은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고 말 뿐이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폭군은 차라리 무정부보다 더 견딜 만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에게 있어서 국가의 기능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가는 단지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해독제로서 또한 단지 악에 대한 처벌 정도로서만 간주되지는 않았다. 국가는 항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임명된 선하고 거룩한 기구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주의의 영향은 칼빈에게 있어서 실제로는 사라졌다.<sup>24)</sup> 그러므로 칼빈의 국가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었다. 칼빈의 사상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는 구별된다. 그러나 그 둘은 서로 정반대적이지 않다. 더구나 칼빈의 교회는 세속 권위에 의해서 후원을 받으면서 심지어 국가보다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까지 보여지기도 한다.

21. OS. V. 493. (=*Institutes.*, 4.20.22.), “Subditorum erga suos magistratus officium primum est, de eorum functione quam honorificentissime sentire, quam scilicet velut delegatam a Deo iurisdictionem agnoscent : eosque ob id suspicere ac revereri ut Dei ministros ac legatos.” (“집권자들에 대해서 그 지배 하에 있는 국민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그들의 지위를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집권자들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으로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대표자로서 존경해야 한다.”)
22. OS. 493-500. (=*Institutes.*, 4.20.22-29.), “국민이 집권자에게 복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나타내게 된다. 통치자들의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23. W. Balke,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tr.) W. Heynen(Grand Rapids : Eerdmans, 1981), pp. 351-53.
24. E.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pp. 613-15.

### 3. 교회와 국가의 관계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할 때마다,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 아래로 이중의 정부라는 용어를 변함없이 사용해 왔다. 즉, 영적인 정부와 정치적인 정부가 그것이다.<sup>25)</sup> 칼빈은 이 기구들을 하나님에 제정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굽복하는 기구로서 간주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소멸되지 않는다. 현세의 정치적 질서는 최후의 날까지 종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최후의 날에는 어떤 정치적인 권위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의 국가론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생활하는 한, 정치적인 권위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sup>26)</sup> 그렇지만 국가의 권력은 한시적인 것이다. 국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칼빈의 사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지만, 시민 정부의 사역은 거룩하게 임명된 그 자신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다. 따라서 칼빈 그 자신의 사상과 칼빈주의의 전통 속에서, 국가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거룩한 기관이다.<sup>27)</sup>

25. W. van 't Spijker, "The Kingdom of Christ According to Bucer and Calvin", in : *Calvin and The State*, (Ed.) P. de Klerk(Grand Rapids : Calvin Studies Society, 1993), pp. 120–22. 판트 스페이커르는 그의 논문을 마치면서 칼빈이 그 형식을 기록했던 문맥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칼빈이 그의 강요를 프랑스 왕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분적으로 국가의 권위를 지지하기 위해서, 사회에 위협을 주었던 재세례파 혁명가들과 대조해서 말이다. 그에 의하면, 칼빈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목자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다른 목자들'이라는 개념과 가까운 태도라고 한다.

26. A.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pp. 215–216.

27. G. J. Keddie, "Calvin on Civil Government", p. 44. D. E. Holwerda, "A Look at Calvin's Eschatological Vision", in : *Articles on Calvin and*

만약 우리가 교회와 국가에 대한 칼빈의 사상을 자세히 고찰한다면, 우리는 1536년에 나온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과 1559년에 나온 그의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 사이에 그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발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sup>28)</sup>

그의 첫판에서 칼빈은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편지 이후에, 6장 안에서 율법(주로 십계명), 믿음(주로 사도신경), 기도(주로 주기도문), 성례, 잘못된 성례, 그리고 교회적, 시민적 권력과 관계해서 기독인의 자유에 대해서 기록했다. 칼빈의 의도는 프란시스 1세에게(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자들은 국가 전복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칼빈은 자신의 정파는 국가에 순종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의 권리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혁명적인 재세례파들과 현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가톨릭 당파 사이에서 중도의 길을 걷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칼빈의 1536년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복종이 강조되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sup>29)</sup> 이 첫판에서 우리는 칼빈은 종교적 반대자(dissenter)에 대해서 국가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첫판을 기록할 때, 그는 프랑스에서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첫판을 기록할 때, 그는 프랑스에서

*Calvinism vol. 9. Calvin's Theology, Theology Proper, Eschatology*, (ed.) R. Gamble(New York & London : Garland Publishing, 1992), p. 158.

28. 필립 홀트롭은 칼빈의 회의 기록들, 편지들, 작품들을 모으면서 좋은 칼빈연구를 개진했다. 개혁교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는 칼빈과 제롬 볼섹파의 논쟁을 조사하는 데서 출발했다. 홀트롭은 칼빈은 자기 자신의 신학적 입장에 너무 권위적이어서, 그 신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도 금지했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칼빈에 대한 너무 긍정적인 묘사들이 칼빈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들에 서만, 그리고 배자와 다른 칼빈의 제자들에 의한 변증적인 작품들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29. P. C. Holtrop, *The Bolsec controversy on predestination, from 1551 to 1555 : The statement of Jerome Bolsec, and the Responses of John Calvin, Theodore Beza, and Other Reformed Theologians*. 2 vols.(New York and Ontario : Mellen, 1993), p. 186.

바젤로 넘어온 종교적, 정치적 난민이었다. 칼빈은 결코 '종교적인 적'들, 심지어 '터키인들과 사라센인들'에 대해서조차 어떤 유형의 폭력도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칼빈 자신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던 것이다.

"그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터키인들과 사라센인들, 그밖에 종교의 적들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로 대하여야 하겠다. 그들을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즉, 그들로 하여금 불과 물과 다른 일상 요소들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들의 인간성을 부인하며, 그들을 칼과 무기로 육박지르는 방법 등이다."<sup>30)</sup>

칼빈은 제네바에서 마침내 영향력 있는 종교적 지도자가 되었다. 그의 「기독교 강요」의 이후의 판들에서는 국가 권력이 종교적인 적들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위의 언급은 발견되지 않는다.<sup>31)</sup>

한편 칼빈이 국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록할 때, 우리는 교회와 국가에 대한 칼빈의 사상이 한층 발전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부에 대한 칼빈의 주장은 그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듯이 정부의 역할은 사회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30. OS. I, 91.(=*Institutes.*, 1536. 2.B.28.) Neque ii modo sic tractandi sunt, sed Turcae quoque ac Saraceni, caeterique verae religionis hostes ; tantum abest ut probadae sint rationes, quibus eos ad fidem nostram adigere multi hactenus moliti sunt, dum aqua et igni, communibusque elementis illis interdicunt, cum omnia illis humanitatis officia denegant, cum ferro et armis persequuntur.

31. A. J. Jelsma, *Frontiers of the Reformation*, p. 8. Cf. S. Castellio, *Concerning Heretics, Whether They Are to be Persecuted and How They Are to be Treated. A Collection of the Opinions of Learned Men, Both Ancient and Modern. An Anonymous Work Attributed to Sebastian Castellio*, (tr.) R. H. Bainton(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5), p. 203.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우리는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고,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 것이다."<sup>32)</sup>

그렇지만 칼빈은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에서, 국가에 대해 보다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과제들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그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의 문장들을 덧붙였던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의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sup>33)</sup>

칼빈은 볼섹과 별인 그의 예정론 논쟁에서 제네바 안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입장에 혼들림이 없었다. 칼빈은 실제적으로 강력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이때 칼빈의 정치적 위치는 1536년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1559년의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정부에게 교회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육체가 정신의 대리자처럼 움직여지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정치적 권력은 참교회와 진실된 교리를 위해서 봉사해야만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에서 위정자들은 종교적인 후원을 해야 하는 직무가 있음을 밝히는 문장들을 덧붙였던 것이다. 칼빈은 정치가들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32. OS. V. 473.(=*Institutes.*, 4.20.2.), .....at huic destinatum est, quandiu inter homines agemus, .....vitam nostram ad hominum societatem componere, ad civilem iustitiam mores nostros formare, nos inter nos conciliare, communem pacem ac tranquillitatem alere.....

33. externum Dei cultum fovere et tueri, sanam pietatis doctrinam et Ecclesiae statum defendere.

“여기서 우리는 집권자의 직책을 겸해서 설명해야 하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직책을 어떻게 묘사했으며 또 그것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설명하겠다.”<sup>34)</sup>

그러면서 칼빈은 많은 새로운 설명들을 추가하는데, 그 첨가된 문장들은 위정자들과 정부의 필요성과 교회의 영예를 돋기 위한 위정자들의 사명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는 위정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매우 긴 설명을 추가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라는 것이다. 이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를 지키고 후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sup>35)</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판(1559년)에서 왕이 악행을 행한 자들을 추방했던 것을 칭송하는 문장들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그(다윗)는 또 그 땅의 악인들을 진멸해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모든 행악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것을 왕의 한 덕행이라고 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라고 솔로몬을 칭찬한 것도 이 부류에 속한다.”<sup>36)</sup>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가르침은 일종의 발전을 이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칼빈은 자신의 개혁교회를 확고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의 공적인 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이슈들에 까지 개입할 수 있고 또 개입해야만 한다는 것까지도 의미했다.

우리는 이런 칼빈의 강화 현상을 볼섹과 세르베투스의 경우에서 엿볼 수 있다. 볼섹 사건은 분명히 신학적인 이슈였지만, 그것은 위정자들 앞에서 조사되었다. 세르베투스 사건은 더 분명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단은 제국 내에서는 ‘형사적인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로마 법으로부터 확립되어 온 전통이다. 따라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뿐 아니라 세속권력으로 이단을 치벌한 예는 많이 있다.”<sup>37)</sup>

교회의 당회(Consistory)가 아닌 시 의회가 정치적인 이슈 때문이 아니라 이교도와 신성모독의 문제 때문에 판결을 내렸다.<sup>38)</sup> 필립 홀트롬에 의하면, 이것은 1554년과 그 이후에 이교도에 대해서 칼(무기)을 사

34. OS. V. 479(=*Institutes*, 4.20.9.), Iam officium magistratum, quale verbo Dei describitur, ac quibus in rebus situm sit, obiter hoc loco indicandum est.

35. OS. V. 479 – 480.(=*Institutes*, 4.20.9.), “…… Extendi vero ad utranque Legis tabulam si non doceret Scriptura, ex profanis scriptoribus discendum esset; nullus enim de magistratum officio, ferendis legibus et publico statu disseruit, qui non exordium faceret a religione et divino cultu. …… Ac iam ostendimus has illis partes a Deo specialiter iniungi: sicuti aequum est tuendoet asserendo eius eius honori operam impendere, cuius vicarii sunt et cuius beneficio imperant. Hoc quoque nomine maxime laudantur sancti Reges in Scriptura, quod Dei cultum corruptum vel eversum restituerint, vel curam gesserint religionis, ut sub illis pura et incolumis floret. Contra vero Sacra historia inter vitia anarchias ponit, quod non esset Rex in Israel, ideoque facheret quisque quod placebat. Unde coarguitur eorum stultitia qui vellent, neglecta Dei cura, iuri inter homines dicundo tantum intentos esse. Quasi vero praefectos Deus suo nomine constituerit, qui terrenas controversias deciderent: quod vero longe gravioris momenti erat praetermisserit, ut ipse pure coleretur ex Legis suae praescripto.”

36. OS. V. 482.(=*Institutes*, 4.20.10.), Unde etiam inter regias virtutes hanc commemorat, perimere impios terrae, ut omnes operarii iniquitatis profligentur ex urbe Dei. Quo etiam pertinet laus quae Solomoni tribuitur, Dilexisti iustitiam, et odisti iniquitatem.

37. T. H. L. Parker, *John Calvin : A Biography*(Philadelphia : Westminster, 1975), pp. 121 – 22.

38. W. F.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Richmond : John Knox Press, 1971), p. 50.

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강력한 문장들의 배경이 된다.<sup>39)</sup>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칼빈은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교회와 국가에 대한 그의 태도를 적용해 나갔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와 국가에 대한 칼빈의 사상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단지 교리만 가지고 조사하기 전에 그 배경을 포함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조사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왜 국가가 신학적 교회론적 논제에 개입해야만 하는가? 국가는 이교도를 하나의 범죄로서 처벌해야만 하는가? 어떤 사상이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국가에 호소하도록 했는가? 결국,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사상에는 무슨 기본적인 이론이 존재하는가?

#### 4. 맷음말

위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칼빈의 사상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영혼과 육체의 유비’라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칼빈은 자신의 삶 동안에 영혼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칼빈은 인간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간론을 받아들였다. 영혼과 육체가 그것이다.<sup>40)</sup> 칼빈에게 있어서 영혼과 육체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게다가 이 영혼과 육체는 서로 독립적인 ‘본체(객체)들’이다.<sup>41)</sup>

39. P. C. Holtrop, *The Bolsec controversy*, pp. 186–7. 우리는 세르베투스의 사전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태도를 칼빈과 카스텔리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40. OS. III. 174. (=*Institutes*, 1.15.2.), “Porro hominem constare anima et corpore, extra controversiam esse debet.” (“더욱이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41. OS. III. 173–176. (=*Institutes*, 1.15.1 and 2.)

그렇다면 이 두 본체가 분리된 이후에, 즉 인간이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칼빈은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영혼은 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살아남아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칼빈은 영혼의 수면(특히 재세례파들이 주장했는데)과 영혼의 죽음이라는 이론을 믿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공격했다.<sup>42)</sup> 칼빈에게 있어서 영혼은 가장 높은 위치이며, 영혼(anima)은 인간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다.<sup>43)</sup>

칼빈은 영혼은 육체의 생명과도 같다고 보았다. 영혼은 모든 부분들에 생기를 넣어 주며, 그 모든 기관들을 각각의 행동에 적절하고 유용하게 한다.<sup>44)</sup>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자신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플라톤의 입장이 보다 옳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에서 보기 때문이다.”<sup>45)</sup>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영혼은 거룩하며 인간의 불멸의 부분이다. 육체는 부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일시적인 피난처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영혼을 하나님의 실제적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러나 불멸하는 존재로 보았던 것이다.<sup>46)</sup>

42. “칼빈은 인간은 죽으면 인간의 영혼은 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남아 있다는 확신을 그의 제자들에게 설파했다. 그러므로 그는 영혼의 수면(특히 재세례파들)과 영혼의 죽음이라는 이론을 믿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공격했다.” A. J. Jelsma, *De Ziel van Calvin*(Kampen : Kok, 1998), pp. 21–2.

43. W. Bouwsma, *John Calvin : A Sixteenth Century Portrait*(New York/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78.

44. OS. III. 182–184. (=*Institutes*, 1.15.6.)

45. OS. III. 182–184. (=*Institutes*, 1.15.6.)

46. A. J. Jelsma, *De Ziel van Calvin*, pp. 11–12, 21–22. “칼빈에게 있어서 영혼은 거룩하며 인간의 불멸의 부분이다. 육체는 부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일시적인 피난처이다. 참으로 칼빈은 영혼을 하나님의 실제적 형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러나 불멸하는 존재로 보았다.” Cf. W. Bouwsma, *John Calvin :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p. 79.; W. Balke,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pp. 304–5. 칼빈과 플라톤주의의 창조 교리의 관계성을 위해서는 홀베르다의 다음 논문을 보라. D. E. Holwerda, “A Look at Calvin’s Eschatological Vision,” in :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vol. 9. *Calvin’s Theology, Theology Proper, Eschatology*, (ed)

이런 문맥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혼 – 육체의 이분법적 유비’라는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칼빈 자신이 기록하듯이 “인간 안에는 두 세계가 존재하는데, 다른 왕들과 다른 법들이 그 세계를 지배한다.” 하나는 ‘내적 마음에 존재’하며, 다른 하나는 “외적인 행동을 규제한다.”<sup>47)</sup> 여기에서 칼빈이 영혼을 영적인 정부에, 육체를 국가에 비교하고 있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인간은 이중 정부의 지배 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영혼의 지배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 정부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국가의 권력은 완전히 구별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정반대는 아니다.”<sup>48)</sup> 칼빈은 ‘경건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영적인 부분’과 법을 제정하는 책임이 있고, 인간성과 시민성에 대한 의무가 있는 ‘일시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나누었던 것이다.<sup>49)</sup>

칼빈의 견해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문화, 교회와 국가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영혼과 육체가 한 전인에서 서로 나뉘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회와 국가는 영혼과 육체처럼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은 영혼 – 육체의 유비이다. 칼빈은 교회와 국가 혹은 양심과 외적인 행동의 관계를 영혼과 육체의 유비를 가지고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존재한다.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시민 정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경배를 보호하고 지켜야만 한다. 국가는 또한 일반적인 평화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

하고 경건한 교리와 교회를 변호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 내에서 교회의 후원자가 된다.<sup>50)</sup> 칼빈의 이 견해는 유럽의 정치적인 상황과 그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발전되었다.

칼빈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사상에서 종말론적인 특성 또한 영혼과 육체라는 그의 유비에서 비롯된다. 칼빈에게 있어 영혼은 영원하다. 반면 육체는 사멸하게 마련이다. 이와 동일하게 교회는 영원하며, 국가는 이 세상에서 한시적이다.

결과적으로 칼빈이 국가를 교회 밑에 예속시켰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단지 칼빈은 국가와 교회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영혼과 육체’의 관계와 같다. 그러므로 칼빈은 그의 도시 제네바에서 매우 독특한 교회 – 국가를 창출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다.

R. Gamble(New York & London : Garland Publishing, 1992), p. 114.

47. OS. IV. 199–200.(=Institutes., 3.11.15.).

48. OS. V. 471–2.(=Institutes., 4.20.1.).

49. W. Bouwsma, *John Calvin :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p. 204.

50. Cf. P. C. Holtrop, *The Bolsec controversy on predestination, from 1551 to 1555*, pp. 184–86.